

WILKINSON과 함께한 다음 날

문자 메시지는 분명했다.

“12시에 호텔 앞에 나와 있어요.

딸과 손녀들을 데리고 들를게요.

점심을 먹으러 데려갈게요.

그다음엔 오후를 함께 보내요. 지루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전날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루함은 내가 가장 걱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시간을 지켰다.

철저하게 시간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운전기사가 없었다.

운전기사는 하루 휴가를 받았다.

Maggy가 운전대를 잡고 계셨다.

고백하건대 나는 신께 짧은 기도를 올렸다.

영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자동차와 관련된 이유에서였다.

모든 일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다.

놀랄 일 없이.

적어도 그런 종류의 놀랄 일은 없이.

그러나 그녀는 더없이 편안해 보이셨다.

그녀는 대화를 이끌 때와 같은 자신감으로 운전대를 쥐고 계셨다.

결정을 내릴 때처럼.

회의를 주재할 때처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늙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운전을 그만둔다.

어떤 이들은 여행을 그만둔다.

어떤 이들은 결정 내리기를 그만둔다.

Maggy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계속하셨다.

마치 시간 자체가 존경의 뜻으로 비켜서기로 한 것처럼.

우리는 런던을 가로질러 계속 달렸다.

그들은 앞좌석을 내게 남겨 두었다.

보통 손님에게 내주는 자리.

Maggy가 운전하고 계셨다.

그녀의 딸과 손녀들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몇 분 뒤 그들은 내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영국 요리죠.”

그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예의상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꾸밈없는.

Maggy는 딸 쪽으로 몸을 돌리셨다.

이론 하나를 막 증명해 낸 사람의 표정이었다.

“이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니?”

딸은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미소 지었다.

마치 내 대답이 그들이 훨씬 전부터 이미 이야기해 온 무언가를 확인해 준 것처럼.

나는 설명을 청하지 않았다.

때로 질문은 너무 일찍 도착한다.

반면 답은 저마다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그저 그 이상한 영국 가족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가 만나기 훨씬 전에, Maggy가 이미 내가 누구인지 정해 두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저 뒤늦게 따라잡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한 식당에 도착했다.

영국 귀족의 화려한 사치에 속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제복 입은 도어맨도 없었다.

지위를 과시하는 것도 없었다.

꾸며 낸 세련됨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맛있게 먹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요리는 사물의 예술과 같다.

가장 단순한 것이 거의 언제나 가장 좋다.

그리고 Maggy가 바로 그랬다.

그녀는 성에 살면서 그것을 빌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었다.

여왕처럼 말하고 런던 택시 기사처럼 운전할 수 있는 분이었다.

영국 귀부인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당신을 자기 역사의 폐허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었다.

하지만 먹을 때가 되면, 그녀는 실질을 택하셨다.

겉치레가 아니라.

어쩌면 그래서 내가 계속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검이 지닌 강철 뒤에서, 나는 하나의 제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Ferdinando